

진보교육연구소 월/레/토/론/회

## 학부모운동과 청소년운동

일 시 : 2009. 4. 17(금) 18:30~21:00

장 소 : 진보교육연구소 회의실

### ■ 학부모운동

- 1 계급적이면서도 대중적인 학부모운동을 위하여

이현 (진보교육연구소 소장)

- 6 학부모운동에 대하여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

### ■ 청소년운동

- 9 청소년운동의 의미와 방향

손지희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

- 14 계급장 떼고 맞짱 뜨는 즐거움

조영선 (경인고/진보교육연구소 회원)

청소년운동의 사례소개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계급적이면서도 대중적인 학부모 운동을 위하여

이현 (진보교육연구소 소장)

### 학부모의 정체성 - 복합적이면서도 모호한-

○ 지금까지 학부모 운동에 대한 고민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의 학부모 단체나 모임이 교육 관료들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으면서 교육 관료들의 수족으로 기능해왔기 때문에(불법적 또는 관행적인 존중주기, 학부모 기부금 각출 등의 역할을 주로 담당) 어떻게 하면 교육 관료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자립적(자주적)인 학부모 모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 또 하는 학부모라는 위상 자체가 자녀를 매개로 형성되는 간접적인 정체성이며, 우리의 교육 풍토에서 교육을 통한 자녀의 지위 상승 추구라는 사적 욕망에서 벗어난 공적이고 집단적인 정체성을 학부모가 지닐 수 있는가라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 즉 학부모 운동은 대중성을 지닐 수 있는가라는 문제.

○ 그러나 최근에는 여기에 새로운 문제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참여와 발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학부모의 참여가 주로 소비자 정체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은 실제로는 소수의 중상류 계층의 학부모에게만 유리할 수 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 있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소비자 정체성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존재.. 결국 이 문제는 학부모 운동의 계급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함

○ 이는 남한 사회의 정치-사회적 변화와도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87년 민주항쟁이전까지 사회구성원들의 민주적 권리를 극도로 제약되었으며 정치-사회적 참여 또한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음. 오로지 신민(臣民)으로서 관(官)과의 기생적인 협력 관계만 허용되었다.(臣民적 정체성)

87년 민주 항쟁으로 형식적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새로운 주체 형성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음. 단지 선거에서 유권자로서의 투표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 속한 삶의 현장에서의 민주주의의 확대(사회적 민주주의) 즉 일상적 참여권과 자기 결정권(자치권)을 요구하는 흐름이 확대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굴절되고 마는데, 자기 참여권과 자기결정권은 철저히 배제되고 오로지 이익단체로서의 협상권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됨(노동계급의 경우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경영 참여권은 철저히 봉쇄되고 교사운동의 경우 교장선출보직제나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좌절되고 단결권과 교섭권만-그 조차도 매우 왜곡된 형태로- 인정됨)

○ 서구의 몇몇 국가에서는 노동계급의 정치 세력화가 확대되고 계급투쟁이 격화되면서 계

급타협적인 복지국가(사민주의) 체제가 들어서기도 했지만, 노동계급의 정치적 진출이 미미했던 남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민주주의의 요구는 신자유주의의 장벽에 부딪혀 좌절되어 갔다. 신자유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민주주의의 요구를 질식시켜 나갔는데..

우선 '경쟁' 이데올로기의 전면화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경쟁에서 살아남거나 승리하는 것을 유일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경쟁을 위한 효율성을 민주적인 가치를 대신하는 지배적인 가치로 부상시켰다. 민주적 가치가 대중의 평등한 역능을 신뢰하고 또한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을 중요시한다면 효율성은 민주주의를 무질서하고 혼란스런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쉬우며, 그 본질적 속성상 엘리트주의, 권력과 명령의 독점, 차별주의(성과에 기초한 차별적 보상)를 선호한다.

또 하나의 측면은 소비자 정체성의 확산이다. 소비자의 정체성은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전에 의한 대중소비시대의 도래와도 관계가 있지만 신자유주의는 사회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관계를 공급자와 소비자의 연쇄고리로 규정함으로써(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유일한 사회적 실체 또는 가장 올바른 사회적 공간은 시장이며, 시장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급자와 소비자로 현상한다.) 단순히 소비행위를 통한 소비자 정체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를 소비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 학부모의 경우에도 87항쟁을 경과하면서 민주적인 참여의 권리를 요구하는 집단적이고 자주적인 학부모 운동이 출현하였지만 그들의 참여요구는 학교운영위라는 제한적인 형태로만 실현되었으며, 결국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에 흡수되는 경향이 나타났음. 이런 경향성은 교육을 통한 자녀의 지위 상승이라는 사적 요구와 맞물려 더욱 강력해지는 현상을 보임. 결국 다수의 학부모들은 집단적·공공적 주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진보적 학부모 운동보다는 소비자적 정체성에 기반을 하고 있는 교육담론에 더 큰 영향력을 받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학부모들의 소비자적 정체성으로의 포섭은 매우 불안정하고 모순적인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학부모들의 소비자적 정체성은 소비의 쾌락보다는 고통으로 다가온다. 보통의 소비처럼 이 과정을 통해 쾌락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의 과대 지출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이런 출혈적 지출이 대부분이 아무런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는 소모적이고 무모한 것이 될 것이라는 항상적인 불안에 직면해 있다.

또한 소비자적 정체성이 대부분의 학부모들에게는 자기이해에 배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결국 소비자적 정체성은 소비지불 능력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따라서 소수의 상류 계층에게만 유리하다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알아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 교육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가 등장한다. 아무리 교육에 대한 사적 욕망에 사로잡힌 학부모라도 교육의 본래적 기능이 그래서 안된다는 것을.. 학부모를 소비자로 호명하는 경쟁 교육이 결국은 반교육적이고 자기 자녀에게도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적으로 느끼고 고민할 수밖에 없게된다는 사실.

○ 따라서 지금 학부모 운동은 어떤 분기점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가 교육시장화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교육시장화 저지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인가?

남한 사회에서 교육시장화나 교육공공성 강화나, 둘 중에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키포인트는 교사나 학부모이지 않을까? 하지만 학부모들의 조직화와 정치적 결

집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주로 여론이라는 추상적인 모습으로만 간혹 얼굴을 내밀 뿐,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실천과 투쟁의 주체로 모습을 드러내기에는 아직은 버거워 보인다. 지난 일제고사 투쟁이 그 풍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 계급적이면 대중적인 학부모운동 만들기

○ 학부모가 교육과 관련되는 지점은 우선 학생의 후견자로서 그리고 교사와 함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협력자로서 역할임. 학교 운영위는 후견자로서의 학부모에게 학교 운영에 대한 발언권을 일정하게 보장한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하지만 학교운영위는 일반 학부모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상류층 학부모의 발언통로로 제한되는 경향이 존재함)

한편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협력자의 역할은 제도적 장치의 결여(예를 들어 학급 학부모회의 공식화 등)와 더불어 학교문화의 관행(교사와 학부모와의 결끄러운 관계,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 등) 과 맞물려서 거의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학부모는 교육모순에 의해 고통받는 존재로서 교육모순 해결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육운동의 주체로서의 위상을 지님.

학부모 운동은 학부모의 이런 세 가지 위상(정체성)을 반영하는 운동이어야 하며, 이를 적절하게 결합시켜 나갈 필요성이 존재함

즉 학부모의 참여권과 발언권의 확대(학교운영에서부터 지역사회-전국적 차원까지)를 위한 노력, 자녀 교육에 대한 공동 고민과 협력 체계 마련(또는 협력자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그리고 교육모순 해결을 위한 실천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나가야 함

○ 그런데 현실에서의 학부모 운동은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여전히 다수의 학부모가 교육에 대한 사적 욕망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 운동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소수화되어 있다.(대중성의 부족) 또한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해 다양한 입장으로 분화되면서 정체성과 방향성에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 시장적 선택권의 확대와 소비자로서의 교사에 대한 통제권의 강화를 학부모 권리의 신장으로 느끼는 혼란스런 정념들이 여러 갈래의 학부모 운동에 깊게 스며 있다.(계급성의 부재)

○ 먼저 계급성의 문제를 살펴보자. 학부모 운동의 계급적 분화는 필연적이다. 모든 학부모의 이해가 일치할 수 없다. 교육시장화의 경우 공교육에서도 고급스런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이 존재하는 중상류 계층은 교육시장화를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노동자-서민 학부모의 경우에는 교육이 공공재로서 사회구성원들에게 제공될 때만 그들의 자녀들이 평등하면서도 질 높은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다. 즉 개인적인 지불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교육이 제공될 때 노동자-서민의 자녀들은 더욱 커다란 교육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교육 시장화와 상품화는 단순히 교육학적인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적 이해 대립의 문제이다.

따라서 학부모 운동은 다양한 성격을 지닐 수 있다. 교육시장화를 촉구하고 서열화된 학교 체제를 선호하는 상류층 학부모 운동이 존재할 수 있으며 거꾸로 교육시장화와 상품화를

단호히 반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학부모 운동, 교육기회의 균등뿐만 아니라 교육 결과의 평등까지 추구하는 학부모 운동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디쯤에 중간층 학부모 운동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엄연한 학부모 내부의 계급적 이해대립을 마치 없는 것처럼 모든 학부모의 이해가 일치하는 것처럼 전제하는 경향성이다. 이 경우 학부모의 이해의 공통성은 공급자인 학교-교사에 대립되는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으로부터 도출된다. 따라서 학부모 운동의 계급성을 탈각시키려는 자들이 바로 학교와 교사를 공격하는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로서의 정념을 확대하려 하며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계급적 요구를 약화시키고 교육모순의 지점을 학교-교사 대 학부모의 갈등으로 전치시킨다.

탈계급적 학부모 운동에서 계급적 학부모 운동으로 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많은 중간층 학부모 운동들이 신자유주의 소비자 담론에 휩쓸려 들어가고, 반교사 정념에 휘둘려 중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급적 정체성과 요구를 명확히 내세울 수 있는 계급적 학부모 운동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 학부모 운동의 또 다른 과제는 대중성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사실 거의 모든 성인들이 학부모 운동의 조직 대상일 만큼 학부모 운동의 잠재적인 대중적 지면은 넓다. 하지만 막상 학부모를 조직해보면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이 드러난다. 학부모라는 정체성은 자녀를 매개로 형성되는 간접적인 정체성이자 자기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 속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운동의 과제를 자기의 과제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부모들은 정체성의 분열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공공적 주체로 나서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학부모 운동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좀 더 친밀하고 일상적인 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며, 학부모들의 다양한 욕구에 조응할 수 있는 복합적인 사업의 배치가 필요하다. 전자는 학부모의 일상적인 거주 공간이자 교류 공간인 지역 사회에 학부모 모임이 뿌리내릴 필요성을 의미하며, 후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교양교육에서부터 전국차원의 교육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투쟁까지 다양한 층위사업들이 단계적으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배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역학부모 모임은 일종의 교육과 관련된 복합 센터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 강좌, 교육문제를 알아나가기 위한 세미나들,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면 지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학습-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일상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부터 지역과 전국적 차원의 공동실천과 투쟁까지... 일상활동과 투쟁활동이 결합된... 지역활동과 전국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 ○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

학부모와 교사는 다양한 측면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학교 운영의 공동 주체로, 아이들 교육을 위한 협력적 관계로, 교육모순 해결을 위한 연대관계로...

학부모 운동과 교사 운동은 상호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서로의 협력관계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학급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상호 긴밀한 관계가 만들어져야 하며 각 층위의 관계들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소통되고 유통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부모와 교사가 쉽게 교류할 수 있는 지점은 의외로 학급과 학교가 아니라 지역 사회이다. 학급과 학교는 제도화된 공간이 마련되기 전에는

우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진보적인 경향의 교사와 학부모의 우연한 만남 등..), 이 또한 매우 불안정한 형태를 벗어날 수 없다. 지역 사회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학부모와 교사들의 교류가 시작되면 지역 학부모회의 초기 모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제교사 투쟁, 교육감 선거 등은 지역 사회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교류의 흐름을 만들어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런 교류관계들의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떨 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은 교육 문제에 낯설 뿐만 아니라, 지역운동·사회운동의 경험도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학부모 모임의 형성을 위해 교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계급적이면서도 대중적인 학부모 운동의 활성화는 참교육 실현을 위한 일상적 교육활동에도, 교육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운동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뿌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운동의 활성화와 좁은 의미의 경제 투쟁에 간혀 있는 계급 운동의 대중화와 전진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 학부모 운동에 대하여

김태균(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

### 1. 신자유주의 공세속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교육

#### 1) 신자유주의 등장 이유

=> 20세기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개량 정책(케인즈주의적 정책)의 무의미성

=> 자본의 과잉생산과 과잉공급으로 인한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급속한 진전

#### 2) 신자유주의적 공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교육 영역

=> 신자유주의적 사회보장제도 축소과정에서 교육영역도 포함

=> 국가 차원의 공적기제로서의 교육영역 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영역을 이윤추구의 장으로서 규정

#### 3)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 교육의 본질 자체가 파괴 : 교육의 본질은 경제적 토대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에 근거한다면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은 상술한 상대적 자율성보다는 경제적 토대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교육의 본질이 철저히 파괴됨을 의미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에서 양과 질적으로 소외 : 경제적 토대에 종속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하에서는 경쟁과 대립을 통해 덜 가진자들인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배제정책이 우선됨.

### 2. 반 신자유주의 투쟁에서 교육운동 / 학부모운동1)

#### 1) 교육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반 신자유주의 투쟁 전개

: 교육영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영역(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에서 반 신자유주의 투쟁 전개

#### 2) 노동자 민중의 반 신자유주의 투쟁과 함께 하는 교육운동 / 학부모 운동

: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투쟁과 함께 교육영역을 포함한 공적영역의 국가책임론 요구 투쟁 전개

#### 3) 반신자유주의 분쇄 투쟁에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 투쟁으로

: 경제적 논리속의 교육영역에서 국가책임하의 교육의 공공성 강화투쟁으로의 전화

1) 2003년 참학 내부 토론회에서 교육운동전영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의제화 하는 것은 오류이다 라는 주장이 제출된 바가 있음.

### 3. 학부모 운동의 흐름

#### 1) 신자유주의적 학부모 운동

: 교육영역 또한 경제적 논리에 의해 경쟁과 대립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배제원칙

#### 2) 일반 민주주의적 학부모 운동

: 학운위 및 촌지와 학생 체벌 등에 대한 개혁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되 경쟁과 대립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동의

#### 3) 반 신자유주의 학부모 운동

: 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전면 반대 / 노동자 민중의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함께하는 교육투쟁 / 경쟁과 대립을 통한 배제가 아닌 협동과 단결을 통한 공동체 건설

### 4. 학부모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 1) 전면적 반 신자유주의 투쟁에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 투쟁으로

-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기제로서의 교육영역을 경제적 논리로 포기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책임성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의 공공성(국가책임 및 무상교육)을 요구  
- 경쟁과 대립을 통한 배제에서 협동과 단결을 통한 공동체 건설로

#### 2) 초중고교 서열화 정책 분쇄

- 국가가 책임져야 할 초중고등 교육을 시장논리에 맡겨 경쟁과 대립을 통한 다수의 노동자 민중을 배제하는 서열화 정책 분쇄  
- 일제고사 /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 국제중 설립 등 초중고등 교육 단위 서열화 정책 폐기 및 의무 무상 교육 실현 투쟁

#### 3) 한국 입시제도 폐지 투쟁

- 초중고등교육의 서열화의 핵심인 대학 입시제도 및 이를 위한 대학 교육 개혁 투쟁  
- 현 대학 입시제도 폐지 및 자격고시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대학 평준화 투쟁

#### 4) 학교 교원노조 사수 투쟁

-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교육권 및 교육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투쟁  
- 교원노조 탄압 분쇄 / 단협 사수 / 교원 평가제 분쇄 투쟁

#### 5)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

- 교육 서비스 질 저하 저지 및 학교 노동자 생존권 쟁취 투쟁  
- 비정규직 정규직화 / 학교 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

#### 6) 학교 현장 투쟁

- 학교내 각종 비 민주적 제도 개선 및 학부모 직접 개입 투쟁

- 학운위 / 학생 인권 / 체벌 금지 / 교복 공동 구매 투쟁
- 7) 지역 운동의 과정으로서의 학부모 운동
  - 중앙 및 지역단위 교육당국(교육청 등)과 중앙 및 지역 단위 학부모 단체와의 단합 체결<sup>2)</sup>
  - 교육 공동체 각종 결정단위 학부모 참여 보장 및 실질적 운영 주체로서의 학부모 운동 강화

- 8) 학부모 생존권 쟁취 투쟁
  - 경쟁과 대립을 통한 사교육비 증대 및 각종 기부금 및 무임금 봉사활동 금지 투쟁
  - 사교육비 폐지 / 기부금 납부 거부 / 교육현장 봉사 거부 / 무거운 보호자 책무 거부 투쟁

### 5.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역할과 임무

- 1) 기존의 학부모 운동 진영내에서 반 신자유주의 깃발을 분명하게 움켜쥐고 ---
  - 교육의 공공성 포기 및 신자유주의적 재편 음모와 단순한 절차상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학부모 운동 진영내에서 노동자 계급의 이름으로 반 신자유주의 학부모 운동 선언
- 2)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내에서 교육운동의 과제를 제출
  - 노동조합 운동 중심의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을 교육운동의 주체로서 자리매김을 요구
- 3)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대안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투쟁의 공공연한 자기 활동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투쟁의 사회적 공론화 및 실천 투쟁의 지침으로서의 전환 투쟁
- 4) 공공적 기체로서 지역 교육 공동체 사업 전개
  - 공적기체로서의 교육영역의 자리매김 투쟁
  - 교육운동 주체의 참여속에 교육 정책 정립
  - 지역내 노조운동 및 민중운동진영이 공적 교육의 주체로서의 자기 정립

2) 프랑스의 경우 학부모회가 일선학교에서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당국과 단체교섭을 할수 있는 권리와 교육정책에 참여할수 있는 법적 강제력이 있음.

## 청소년 운동의 의미와 방향

손지희 /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

### 한국사회의 청소년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어떤 존재인가? 부드럽게 표현하면 보호와 보살핌의 대상, 본질적으로 드러내면 통제와 순치의 대상이 아닐까. 학원과 학교와 집을 전전하며 컴퓨터 게임과 사이버 공간에 쉽게 탐닉하고 왕따를 쉽게 시키는 이기적인 존재이며 대학생이 되어서도 부모의 과잉보호를 받고 대학을 졸업해도 기다리는 건 비정규직이나 실업의 희망 없는 삶 속에서 언제든 막나갈 수 있는 위태로운 존재로 이미지화되어 있다.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예정된 삶은 더 거칠다. 이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미숙'하다는 이유로 권리를 쉽게 무시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고 입시에 매진하고 경쟁력을 키우라는 주문을 끊임없이 한다.

10대들은 사회적으로 늘 '미숙한 존재'이기만 했는가? 그렇지 않다. 4.19의 주역도 고등학생이었으며 더 멀리서 식민지 시기 중고등학생들은 이미 하나의 주체였다. 자본주의사회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10대들은 날이 갈수록 더 사회적 존재로서의 성장을 유예당한 채 아주 긴 시간동안 어련에 취급을 받게 된 셈이다.

2008년, 이 사회는 청소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촛불국면의 광장을 가장 먼저 열어 제친 것은 다름 아닌 청소년들이다. 어른들의 반응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똑똑할 줄 몰랐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와 정치 참여는 고사하고 인식조차 유예당하는 장기 수험생이 미친소 미친교육을 자기문제로 인식하고 바로 정치적 행동을 펼쳤으니 어른들이 놀랄 만도 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을 왜곡된 사회에서 스스로 깨우쳤고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보를 찾고 소통하던 청소년들은 급기야 광장의 주인이 되었다. 놀랄 일은 아니다. 한국사회 역사에서 청소년은 역사적 행위의 주체였던 것은 촛불국면에서 만든 것이었다.

### 80년대 고등학생운동



80년대에는 상상 이상으로 고등학생 운동(약칭 '고운') 또한 활기를 띠었다. 민주화 운동의 흐름 속에서 억압적인 학교체제에 대한 저항을 분출하였다. 절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억압적인 학교에서 입시의 노예로 자유라곤 없는 삶을 이어갔지만 당시 고등학생운동은 대학생 운동과 연계를 가지면서 조직화된 방식을 취하였고 의제에 있어서는 학교의 변화를 넘어 정치적 색채를 띠고 전개되었다. 억압적이고

살인적인 입시체제는 중고등학생을 강력히 옹아맨 통제기체인 동시에 운동의 동인이라는 양

면성을 가졌다. 80년대 말에는 대통령직선제라는 정치적 변화에 자극받아 학생회 직선제 쟁취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기도 하였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감히 가능했을까 싶지만 당시의 운동 주체들은 수업거부, 등교거부, 시험거부, 농성, 단식 등 높은 수위의 진술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고등학생운동은 당시 사회모순과 교육모순에 대한 자각과 사회 전반적 반독재민주화 운동의 영향을 받아 이미 발생해 있었다. 전교조 운동으로 인해 단순히 촉발되었다기보다는 자체의 동인이 존재하는 역동적 성격을 지녔으며 억압적 교육체제 하에서 서로 대립적 관계에 놓이기도 했던 두 주체가 운동 속에서 공명하며 상승의 흐름을 탄 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주되게 기억되는 사실은 전교조 결성에 대한 탄압에 맞서 전교조 사수투쟁에 나선 것이겠지만 이미 형성된 운동의 주체들이 전교조 탄압에 맞서 연대한 것이었다. 전교조 해직 사태에 47만 여명의 학생들이 '선생님을 지키자'는 슬로건을 갖고 참여하였다. 조직화의 기반이 없었다면 가능치 않은 일이다. 89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등학생들은 시위와 농성 등 행동을 표출했다. 당시 고운의 활동이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졌음은 주목할 만하다. 그 기반이 된 것은 각종 소모임 들이었다. 하지만 90년대 초 노태우 정권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고등학생 운동 활동가들은 강제퇴학 등 엄청난 탄압에 직면하여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되지도 못한 채 크게 위축되고 만다.



▲ 1994년 9월 9일자 동아일보

공안탄압이 직접적 영향을 끼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90년대 고운이 쇠퇴하게 된 것은 보다 넓은 맥락 속에서이다. 먼저, 90년대 들어서자 상업적 대중문화가 급격히 성장했고 이에 따라 소비문화 역시 급속도로 확대된다. 10대 청소년들은 주요한 마케팅의 대상이 되었고 정치적 행동으로 표출되어야 할 억압적인 입시구조에 대한 저항의 자리를 대중문화를 통한 욕구표출이 대신했다. 억압만이 능사가 아니라 자신의 깨달음과 이윤창출의 욕망이 대중의 욕구를 구조화하는 적극적인 기획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일이다. 때마침 나타난 서태지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수렴하였다. 다음으로, 형식적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정치무관심은 확대되었는데 정치적 권리의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여겨지면서 '문화적 권리 신장'이 주된 관심사가 된 영향도 있다. 학생회 직선제는 가법계 수용되었지만 두 발과 채벌은 여전히 청소년들을 분노케 하는 문제였다. 셋째, 80년대 고운이 대학생운동과

연계 속에서 정치적 의제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했던 반면 90년대 초 동구권 몰락 등에 따라 대학생운동의 주체와 조직들은 거의 절멸하다시피 했다. 이 영향이 고스란히 고운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중반, 청소년 인권운동의 시작

90년대에 청소년들이 처한 학교 현실에는 변화가 없었다. 95년 최우주 군은 고등학생의 비인간적 삶의 현실을 고발하고 바꾸어보고자 헌법소원을 낸다. 이 사건은 한 용기있는 청소년 개인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았다. 공감을 이끌어내었고 온라인(피씨통신)을 통해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퍼져나갔고 탄압으로 침체에 빠져있던 고운에 자극제가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고운은 청소년 운동으로 전화되기 시작한다. 대학생운동의 잠재적 주체로서의 성격보다는 '청소년'이라는 세대 주체로서 미미하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된다.

시 간	월요일~금요일	시 간	토 요 일
0800 - 0850	정규수업 1교시	0800 - 0830	아침자습
0900 - 0950	정규수업 2교시	0830 - 0920	정규수업 1교시
1000 - 1050	정규수업 3교시	0900 - 1020	정규수업 2교시
1100 - 1150	중식 시간	1030 - 1120	정규수업 3교시
1200 - 1250	정규수업 4교시	1130 - 1220	정규수업 4교시
1300 - 1350	정규수업 5교시	1220 - 1300	중시 시간
1400 - 1450	정규수업 6교시	1300 - 1350	독활 시간
1450 - 1520	청소 시간		
보충수업 1 교시	1510 - 1600		
보충수업 2 교시	1610 - 1700		
보충수업 3 교시	1710 - 1800		
석식 시간	1800 - 1850		
보충수업 4교시	1850 - 1940		
보충수업 5교시	1950 - 2040		
야간자율학습 1교시	2050 - 2140		
야간자율학습 2교시	2150 - 2240		

- 최우주군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첨부한 춘천고 일과표 -

한편, '청소년'으로서의 자각은 중대한 의미가 있지만 고운이 청소년인권운동으로 전화되면서 운동의 공간이 학교 밖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0년대 청소년 운동은 학교현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단체'들에 의한 운동의 형태를 띤다. 80년대 고운 활동가들은 대학생2로서 성격이 거론되는데 비해 90년대의 청소년운동단체들은 80년대의 정과구도가 연장되면서도 의제에 있어서는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런 탓에 청소년 운동 단체들은 청소년 대중의 욕구와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가 고민거리가 되기도 한다.

학생운동이라는 명칭 대신 청소년운동으로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한계 또한 있다.

첫째, 운동공간의 문제이다. 청소년이라는 범주가 보다 넓은 것이며 따라서 학교라는 기체에 의해 억압받는 학생으로 주체의 성격이 제한될 경우보다 폭넓고 다양한 주체를 아우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운동에 있어서 학교 안과 밖의 경계가 분명해졌다는 뜻이고 사실상 청소년 운동의 공간은 학교 밖에서 안으로 잘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운동 자체에서 비롯된 한계는 아니다. 처한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계생산 구조가 마련되기 어렵다는 것, 졸업하면 그만...등) 사회에서는 정치적 권리를 제한당하는 미성년이자 가족제도 하에서는 양육의 대상인 자식이고 학교에서는 통제와 가르침의 대상인 학생이라는 세대적 위치상의 문제로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학교라는 핵심 공간을 운동의 기반으로 삼지 못하고 '밖'에서 외침을 거듭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두 번째로, '인권'이라는 의제의 성격문제이다. 청소년 인권 문제는 청소년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비상식과 비인권이 판을 치는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 자체로서의 중요성과 더불어 '대중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의제임에 분명하나 제도권에 의해 '포섭'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인권'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특정 주체들의 것으로 개념화하여 운동의 의제로 삼을 때에는 다른 주체들의 의제 및 그 관계 설정에 있어서 난점이 존재하게 된다. 학생인권 혹은 청소년인권의 경우 그 대립물이 교사 혹은 성인으로 설정되기 쉽고 이는 한국사회의 견고한 정서이기도 하다. 자칫하면 운동이 협애화되고 연대를 가로막을 위험성이 있다. 세대 간 대립의제(예컨대 두발, 체벌)로 부각될 경우 당연한 권리임에도 교육운동의 타 주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도전'이라거나 '교권의 위협'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성인교육운동주체들이 청소년인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요컨대, 청소년 인권운동은 80년대 운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체화된 운동이라는 긍정성이 있음에 분명하지만 '개인주체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인정'을 넘어서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80년대 고운의 주체들을 '변혁의 주체'로 바라보았다는 점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문화적 권리의 쟁취와 함께 교육문제 등 정치적 의제를 청소년운동의 주요 의제로 삼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 X세대, N세대를 거쳐 촛불세대로

고운에서 현재의 청소년인권운동에 이르기까지 관통하는 주제는 입시경쟁구조가 만들어내는 문제의 폐기이다. 2008년 청소년들은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을 '미친교육'으로 규정하고 '어른'들보다 먼저 광장으로 나왔다. 일제고사에 가장 열심히 맞선 주체도 청소년들이다. 개념찬 초중고딩들의 등장은 청소년운동이 세대운동으로서의 발전해 나갈 전망을 밝혀준다. (반2MB 정서는 지금 초중고학생들에게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



일제고사에 대한 청소년인권운동가들의 조직적 대응은 사회적 과장을 일으켰으나 교실 안, 노동시장의 청소년들에게는 먼 이야기다. 설사 시험거부, 등교거부를 하고 싶다 해도 감당해야 할 일이 많다. 현실의 벽이 여전히 많은 청소년이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학생회를 직선으로 구성하는 학교들이 대다수가 되었지만 이름뿐인 학생회는 학교 내에서도 별다른 권한이 없다. 학교 밖의 운동과 학교 안의 꿈틀거림이 만나도록 하려면 교사들이 가교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대학을 가야 하는데 괜히 선동해서 망쳐놓는 건 아닌가라는 자기검열은 당연하다. 그러면서도 '애들이 거리로 나오면 뭘텐데'라는 생각을 한편에 품는다. 그렇다면 그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의 힘을 기대하기 이전에 이들이 힘있게 집단적 행위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 그 토대는 바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라는 과제의 중요성을 교육운동진영이 인식하고 힘을 모음으로서 만들어진다. '12년간의 수험생'이라는 왜곡된 세대규정을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운동의 핵심과제이자 청소년이 변혁의 주체로서 세대운동을 펼칠 공간을 여는 방법이다. "내가 해줄게"에서 "우리함께 하자"가 되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교사의 해고에 맞서 3주체가 함께 시위를 한다. 고민과 망설임의 과정을 거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90년대에는 유난히도 세대론이 많이 등장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신세대를 칭하는 X세대, N세대 등은 대중문화와 인터넷문화의 핵심 소비자가 된 10대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이러한 세대

론은 청소년을 소비자로 규정하는 자본입장의 세대규정이다. 자신들의 기획에 포섭된 청소년을 지칭한 말일 뿐이다. 그리고 계속 그 틀에 가둬놓고 싶었을 것이다. 30대가 되든, 40대가 되든, 청소년 시기의 '비정치적 문화소비자'로 평생을 보내길 원했을 터이다. 여기서 생각해볼 일은 비정치적이고 자본에 포섭된 경험을 겪은 세대집단과 정치적 저항의 경험을 가진 세대집단이 성인이 된 이후 정치의식과 사회변화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선불리 일반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30대가 된 한 때 X세대로 불리웠던 서태지 광팬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서태지가 등장하는 광고상품을 소비하는 데서 굉장한 만족과 기쁨을 느낀다. 그 세대의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입시경쟁 속에서도 무한한 기쁨을 주었던 '태지오빠'에 대한 향수이다. 현재의 불안하고 힘겨운 날들을 (이제 직당이 된 그들은) 서태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위안하며 산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떤 30대가 될까? 88만원세대라는 다소 우울한 세대규정도 있으나 필자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2MB정권의 청소년들을 '촛불세대'라고 부르고 싶다. 386세대들의 일부가 정치권으로 기여 들어가 권력의 일부분이 되면서 그 '명성'이 퇴색했지만 촛불세대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다. 촛불세대의 다른 이름인 88만원세대는 생존의 문제에 치여서 고된 삶을 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세대들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급진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예감을 갖게 한다. 일제고사에 맞서 시험거부와 등교거부로 사회적 목소리를 낸 것도 의미가 크다.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라'는 온건한 요구가 아닌 '경쟁 자체를 거부'한다는 급진적 메시지를 던지는 지금의 청소년 세대는 386세대, X세대의 한계를 넘는 사회주체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희망차게 전망해 본다.



프랑스에는 회원 6000명을 가진 전국고등학생연합을 비롯해 많은 고등학생 정치 조직이 있다. 위는 교원감축안 시행에 반대하는 고등학생 시위 모습.



### 계급장 떼고 맞짱 뜨는 즐거움

조영선 (경인고/진보교육연구소 회원)

교사가 될 때부터 소원이 있었다. 애들하고 계급장 떼고 한 판 붙는 것.....

너무 찌질이 같이 서로 비교하고 약한 것들 주제에 서로 무시하고 짓밟고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고, 오히려 존중하는 교사를 짓밟는 그런 찌질한 아이들과 한판 붙고 싶었다. 그런데 한 판 붙을 수 없었다. 그들은 약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와 동등하지 않았다. 그래서 싸울 수가 없었다.

그런 아이들의 머리를 쥐어뜯어주고 싶었다. 소리굽쇠같은 것으로 멍 때려주고 싶었다. 머리가 멍 울리도록 시험, 잔소리 체벌 그런 것들에 눌러 스스로 좀비가 되어가지는도 모른채 좀비가 되어가는 아이들에게 그만 남의 피를 빨고 다시 인간이 되자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러기 어려웠다.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시간이 반복되는 과정은 일정 정도 생각을 멈추고 몸에 좀비가 되는 습관을 들이기에 적당했고, 나의 이런 잔소리 또한 그 좀비가 되는 공정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답답했다. 애들을 만나긴 만나야하는데..... 솔직히 나도 이런 교육 하기 싫다고 말하고 싶은데..... 일제고사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 나에게서 조금씩 몸이 굳어간다는 루게릭 병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다. 아이들도 이러겠지? 살아나고 싶지만, 학교-학원-집의 쳇바퀴를 돌며 몸이 굳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어떻게 살아나기 어렵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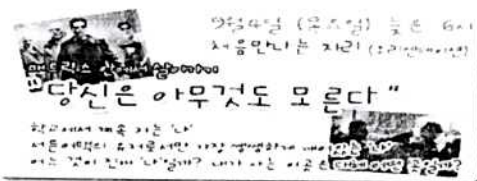
그러다 타이루라는 청소년활동가가 학교는 끝나기 5분전에 가면서 '나다'라는 청소년 아카데미에 꼬박꼬박 가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도대체 학교를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으로 살아가는 그가 피같이 생각하는 버스카드를 쓰고 흥대까지 가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가 듣는 수업을 들으러 가게되었다. 그날의 주제는 '명박산성과 게임이론'이었다. 촛불 항쟁이 한창이던 그 때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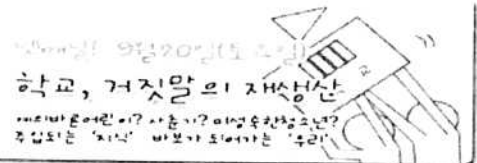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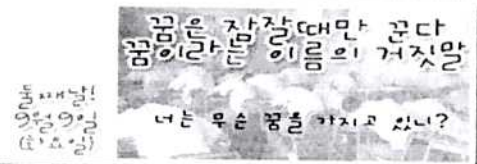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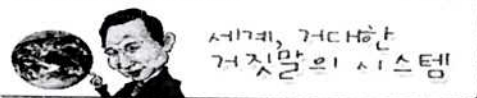
#### 남부지역 청소년 아카데미 강좌



언제? 2009년 9월4일 - 9월20일 / 월요일 6시-8시  
어디까지? 영동로 서울대병원 영문도서관 202호



모든 거짓말은 나쁘다고 하는데 모든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거짓말은 해야 하는 걸까요?



남부지역 청소년아카데미(나다)에 참여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메일 : imagine96@sho-mail.net  
전화 : 019-210-4640

Tip! 남과 같이 이야기할 때는 문법(문법)과 수식(수식) 여러 날 후에 귀찮게 남에게도 되니 그러나... 영동로 서울대병원 영문도서관 202호

준비하는 사람 영동로 서울대병원 영문도서관 202호

'명박 산성'을 넘지 않은 것일까? 거기에서

벌어진던 논쟁을 게임이론으로 풀어보는 것이었다. '명박 산성을 넘을 것인가?':명박 산성을 넘지 않을 것인가?찬성과 반대팀으로 나누어 각자의 입장을 만든 후에 다시 토론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전경과 시위대팀으로 나누어 서로 물총쏘기 놀이를 하기도 했다. 이 얼마나 엽기적 이면서도 속이 시원한가?

그들은 한참 그렇게 논 후에 밖에 밖에 담배를 피러 나갔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양아치와 함께 말이다. (양아치는 소위 학교에서 말하는 수업 진행자,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문득 이런 해방감을 학교가 아니라 지회 사무실에 옮겨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당시는 촛불의 파고가 지나간 후라 촛불을 달구었던 나이 어린 촛불 좀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들었다.

그래서, 지회 집행위에 과감히 제안했다. 수업시간에 촛불 얘기하면 눈을 빛내고 선생님들한테는 적당히 개기고 그런 아이들을 암암리에 모집해달라고..... 지회의 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많이들 도와주셨고, 우리의 안내와 상관없이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부터 학생회장들까지 다양한 아이들이 왔다갔다. 그들은 와서 학교의 거짓말에 대해, 세상의 거짓말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였다. 사실, 내가 학교의 거짓말을 대행하는 노동을 꽤 많이 하면서 학교의 거짓말을 같이 읊는 것이 민망한 순간이 많이 연출되었다. 그 저 나의 대답은 '니네 일은 니네가 싸워야지, 개겨봐, 그렇지 않으면 잘 견디면서 다른 식으로 답답함을 해소하든가.' 이런 말을 하다보니, 오히려 나의 모순된 상황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는 듯 하였다. 전교조 활동을 하면서도 학교에서 무력한 나의 모습이나 학교에서는 좀비같지만 다른 어떤 공간에서 인간을 깨어날 그들의 모습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강좌마다 아이들 구성이 달랐지만 꾸준히 오는 아이들이 조금씩 생겼다. 연인원이50명 정도 되었고, 마지막에 '좋은 교사란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했는데 무척 재미있었다. 학교의 모순이 드러나서 부끄러운만큼 위선을 벗어던지는 시원함이 있었다. 그리고 나의 찌질함이 드러난 만큼 이 교육이 이렇게 된다는 너희 책임도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속시원했다.

#### 남부지역 청소년 아카데미 Season II

- 1. 편지와 글판다, 열매와 밭 (3월21일 PM2시)
- 2. Like A Virgin (3월25일 PM6시)
- 3. 발간 신호등 (3월27일 PM6시)
- 4. 공룡 놀이에 대한 숲은 오미유 (4월29일 PM6시)
- 5. 그곳에 좀비들이 산다 (4월4일 PM2시)
- 6. 나는 언제 죽을까? (4월11일 PM6시)
- 7. 흙 노는 언니들의 문화 고집 (4월11일 PM2시)

그중 10명 정도의 아이들은 겨울에 축제 준비를 하였다. 축제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여파가 지나고 나서 10명 정도의 아이들은 꾸준히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새학기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season2'를 기획하게 되었다. 세를 불러보겠다는 야심찬 기획하에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 문화적인 주제로 시작되었으나 일제고사가 미뤄지면서 일제고사 선전전과 여러 가지 투쟁일정에 밀려 제대로 조직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season2는 팽 나지 않았다. 10명의 든든한 원군과 그들이 데려온 친구들이 그 자리를 메워주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파랑새 공부방 친구들의 참여와 일제고사 반대 학교 앞 선전전에서 세이노에 대해 알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아카데미까지 끈이 닿은 친구이다. 파랑새 공부방 아이들의 경우,일부러 공부방을 찾아가 조직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season1의 멤버의 새 학년 친구가 우연히 파랑새 공부방 학생이었다. 그 친구가 파랑새 공부방의 여러 친구에게 이 강좌를 소개하였다. 사실 그

들이 처음 왔을 때는 친구 소개로 왔을 뿐 빈곤한 중학생들이 영화, 음악, 이런 문화적 주제에 대한 토론에 관심이 있을까 싶었다. 그래서 한번 나오고 안올줄 알았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보다 그들의 삶과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에 솔직했다. 그들의 삶과 관련되거나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면 정말 열심히 이야기했고, 재미없는 부분은 열심히 하지 않고 준비한 간식과 자유로운 컴퓨터 사용으로 즐거움을 얻었다. 즉 아카데미 자체의 주제나 내용만 그들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자유로운 분위기와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에 대한 접근성 (실제 우리학교아이들은 시험기간에 지회사무실에서 친구와 공부할 하기도한다), 맛있는 간식등이 그들을 당기는 요인이었던 것이다. '재미있을까? 없을까?'는 나의 기우였을 뿐, 그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아카데미를 즐겼다.

마지막에 '핸드폰'에 관한 토론도 했다. 두발 자유나 체벌 금지는 답론수준에서는 정리가 된 문제인데 핸드폰은 대안학교조차도 규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토론 주제는 '핸드폰을 제한해도 되는가?', '핸드폰은 (규제주의자)들의 말대로 소통을 방해하는가?'였다. 이것 역시 금기를 넘나드는 주제였고 다소 어렵기도 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른들과 얘기할 때하는 문자질은 앞에 있는 너와 소통하기 싫고 물리적으로 떨어져있는 나의 친구와 소통하고 싶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역시 소통을 막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기구가 아니라 권위적인 관계의 벽이었던 것이다.

나는 사실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방식이 시혜적인 면에 그치거나 구조의 모순을 은폐하는데 일조하는 것 같아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공부방에 있는 빈곤 청소년에 대해 '빵과 장미'중 '빵'만을 원하는 아이들이라는 모순된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한편으로 지회에서하는 청소년아카데미의 경우 복지체계의 바탕위에 이루어진 공부방에 비해 빈곤한 학생들의 기본적인 결핍을 채우지 못하다보니 결국 그런 기본 결핍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부르주아적인 아이들만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내심 찝찝한 면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 중요한 것은 만남의 '관점'과 태도이며 그들의 삶을 대하는 나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즉 그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나눈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내 방식으로 재단하고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구조적인 시선에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청소년들은 모임의 주제가 어떻든 간에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까운 공간과 먹을 것,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음에 있는 말을 터 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것이 보장된다면 그들은 왔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교육부나 교육청에 바라는 것이 아닌가? 돈은 지원해주되 간섭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교육적 시도들의 위협에 대해 책임져주는 것,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선 돈을 대주니, 뭔가 나와야한다는 성과주의와 돈을 대주고, 우리는 너희가 욕하는 그 끈대들과는 다른 참관대니까 우리 말을 들어라하는 우리 안의 '교육청스러움'이 없어야한다. 그리고 그런 권위적인구조가 없어야 청소년들에게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 계급장 떼고 맞짱 뜰 수 있게 된다. 그런면에서 '좋은 교사란 있는가'라는 토론회는 우리 안의 참관대 기질을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토론회였다. 참교사가 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참교사라는 생각부터 버려야한다는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이다.

청소년 아카데미는 나에게 10년 가까이 나를 육아했던 참교사의 명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고 다 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슈퍼맨같은 참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속에서 아이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복원하는 아주 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이들과 이 세계의 음모와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참고자료>

'거짓말'을 끝내고 나서 - 토론회

주제 : '좋은 교사'란 있는가?

제1회 남부 청소년 아카데미의 마무리 활동으로 '좋은 교사란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남부지역의 개웅, 영서, 가산, 오류 네 학교의 16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했고, 교사는 이명남(영서중), 박복희(영서중), 송지선(구로고), 유성희(개웅중), 조영선(경인고), 조남규(오남중)6명이 참여했으며 사회는 청소년 아카데미를 이끌었던 '변용중' 선생님이 맡았다.

우선 '좋은 교사'란 있는가의 질문에 찬/반 양팀으로 나뉘었는데 '좋은 교사란 있다' 팀이 6명, '좋은 교사란 없다'팀이 10명이었다.

사회자 : 학교에서 가장 이상한 일 에는 뭐가 있어요?

0중 : 마이위에 마이보다 얇은 겉옷 입으면 걸리고 겹 때요.

1중 : 실내화 안 신으면 걸리고, 선도부에 100원내고 빌려신어요.

1중 : 교문지도 꼭 해야되나요?

사회자 : 원산폭격 장면 사진 본 외국인 반응이 "동양 애들은 아침마다 요가하냐?"고 해서 상황을 설명해주면 "경찰은 교사의 그런 행위에 대해 아무 제재도 하지 않는가?" 하고 말했어요.

1중 : 우리 학교는 스쿨폴리스가 학교에서 애들 실내화 검사해요.

사회자 : 가장 이상한 광경은 어떤 셈이 애들 때리는데 맞는 애들이나 보는 애들이나, 때리는 교사나 모두 웃어요.

00중 : 학생 다음의 기준이 없어요. 피어싱하느라 신경쓰는 시간보다 어른들과 싸우느라 뺏기는 시간이 더 많아요. 우리는 스스로 학생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우리를 학생이라고 만들어놓고 학생다워야한다고 해요.

0중 1학년 : 정말 이상한 건 초6까지 신경안쓰다가 갑자기 중1되면 모든게 안돼요.

사회자 : 이런 거 외에 이상한 거 없어요?

0중 : 노래 틀어주고 수행평가하는거요. 느낌으로 점수를 매기는게 이상해요.

1중 : 종치면 교실에 앉아있어야되는거 .

0중 : 종치면 앉아있으라고 하고 끝나는 시간은 자기 맘대로 예요.

%% : 교육청에서 전화와서 늦었다고 하고, 우리 한테 화풀이 해요.

\$\$ : 무엇을 잘못했을 때 상황을 설명하면 오히려 화를 내요. 태어났을 때부터 굶슬인데, 엄마 뱃속에서 스팀파마를 하고 나왔을 뿐인데.....

&& : 교복에 이름표 박아야되는거, 처음에는 웃벋고 다니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엔 둔감해졌어요.

@@ : 한번에 복장, 신발, 명찰 머리 다 따로따로 검사해서 벌점이 5~6점씩 쌓여 10점이 넘으면 푸른 교실가요.

사회자 : 푸른교실이 뭐야?

!! : 가면 겹때고 벌받고.

## : 삼청교육대 같은 곳 이라던데 T

@@ :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옛날 얘기하면서 지금은 좋아졌다고 해요.

사회자 : 좋은 선생님은 없어?

\$\$ : 정말 있었다면 학교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 : 학교가 이모양인게 교사만의 잘못일까?

이런 거에 저항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강모 선생님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학대하는 생활지도부 선생님을 인권위에 제소했어요.

!! : 그건 좋은 사람이지만, 좋은 교사는 아닌 것 같아. 그 사람도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의미로든 아이들을 감시하고 억압해야 될테니까.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교사가 되기 힘들 거야. 매일 누군가를 감시

하고 혼내는 일을 해야되니까.

^^ : 그럼 좋은 교사는 뭐때?

\*\* : 직업으로서 교사 역할을 다하고 학생편에 서주면 좋은 교사지

타이루 : 난 교사가 직업으로 있는게 이상한 것 같아. 교사가 직업으로 하는 일이 시험잘치게 하고 나대지 않게 하고 이 학교라는 시스템을 잘 굴러가게 하는 일이잖아.

신고한 교사도 내내 그런일을 하다가 한번 착한 일한거야.

## : 근데 그게 다 교사 책임이야? 수준별 수업하고 주입식 교육하고 그런 걸 강요받는 거잖아. 그리고, 옛날보다 좋은 선생님 많아졌어. 옛날에는 선생님이 신이었는데 지금은 친구같은 선생님도 많아. 어차피 공부를 해야하는데 너무 떠들면 따끔하게 혼내는 건 이해해야돼. 그리고 교사가 통제하지 않으면 공부하고싶은 애들이 피를 보니까 인간적으로 하는데까지 하다가 매를 드시는 거야. ebs 강의도 들으시고 준비 많이 하신다구/

\$\$ : 안떠들게 하려면 억지로 잡아두지 말아야하는데 억지로 잡아두는게 문제야.

@@ : 주입식 교육이나 수준별 수업을 하는 교사가 문제라면 그 걸 조용히 받는 학생도 문제지 .

\$\$ : 교사가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합리화해주는 건 않아. 지하철에서 5번 떠든다고 때리지는 않잖아. 그 교육을 받고 싶지 않은 애들이 있는데 그 교육제도를 바꾸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억압하는 것은 나빠.

@@ : 수준별 수업으로 욕구가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있어.

\$\$ : 수준별 교실에서 하반예들을 억지로 공부시키긴 마찬가지로야. 가뉘놓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니야?

@@ : 학생들보고 나가라고 하면 애들이 안나간다구.

\$\$ : 계속 학교에 다녀야한다는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 갈태가 없고, 먹고 살길이 없어서 그런거야.

## :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공부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어른으로부터의 인정이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게 아닐까?

@@ : 이 시기에 괴롭지만 배워야할 것이 있는 게 아닐까?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다만 강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거지.

\$\$ :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공부를 할지, 안할지 선택권을 준다고 해도 공부를 해야된다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있어. 공부를 안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시스템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 근데 공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죽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니까 공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거지. 진정한 선택이 아니야

## : 공부는 어떻게, 무엇을 배우는 가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사회에 나가서 '2차방정식'을 배우지 않는데 배워야하는게 이상해.

\$\$ : 공부가 단순히 배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권리'이자 '선택'의 문제가 되잖아. 공부를 포기하면 엄청난 사회적 박탈이 되고 또 나이를 먹으면 공부할 수도 없고 말이야.

사회자 : 사실 초등학교 때 삶에서 모든 걸 다 배우는 데 고등학교 6년 동안의 교육의 목적이 뭘까?

\$\$ :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고에서 배우는 것은 창의성같은 것과는 관계가 없고 승패를 가리기 위해 배우는 것 같아.

%% : 승자와 패자가 없는 것은 공산주의야.

\$\$ : '패배'라고 말할 때 '패배'의 기준이 뭘까?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한 것이 아닐까? 나는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부모들은 '패배'했다고 말해. 정확한 '패배'가 있다가 보다는 '패배'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있다고나 할까?

## :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상이 실현된 적인 별로 없지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차별은 지속될 수 밖에 없어.

%% : 근데 우리가 이렇게 떠들어서 바뀌는게 뭐야?

\$\$ : '권력이 있다면 바꿀 수 있다고 하며 권력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자'는 건 썩 아닌 것 같아.

'권력'을 인정해주면 계속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데..... 청소년은 쓸모없는 노동을 하면서 자신이 노예인 줄도 모르지. 이 학교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우리가 사실 이걸 선택하고 있는 거지.

%% :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벗어나 살 수 있는 용기가 없어.

## : 나는 이 시스템 안에서 내 꿈을 찾았어. 스타일리스트가 될 건데, 청소년들이 자기 꿈을 찾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이 사회를 타하는 건 나쁜 것 같아.

사회자 : 모든 사람들이 처한 조건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에, 어떤 사람은 알바에 매여있기도 하고.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전제가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교사란, 노예와 권력자 사이의 대리인 정도 인데 이쯤에서 '교사'의 의견을 들어볼까?

유쌍 : 초년병 때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 상처 많이 받았어요. 아이들에게 허용적으로 대해서도 아이들은 존중해주기 보다는 "저 선생 만만해" 뭐 이런 식이고 허용해주는 것 자체가 교장, 교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보니 한 시간동안에 마음이 천갈래만갈래로 찢어져요. 그래서, 자꾸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돼요. 이걸 좋은 교사와 나쁜 학생, 또는 나쁜 교사와 좋은 학생 뭐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교조를 가입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을 해도 일상은 일상대로 버티면서 살다보니 좋은 교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스스로를 '간수'라고 인정하고 살아요. '좋은 교사'로 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을 '위한다'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교사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학생들도 스스로 나서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빨간 자전거 : 저는 학교에서 굉장히 불행해요. 애들도 불행하니까 저도 이 정도는 불행해야된다고 생각해요.

\$\$ : 아직 교사들은 죄책감을 벗어나는 안돼요. '교사의 학교'와 '학생의 학교'는 굉장히 다르니까요.

사회자 : 교사가 '세계'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고, 학생들을 '교사'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온 친구들도 결국 학교 선생님에게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온 것도 선생님들이 한번 오라고 한거니까 와 본 것 아니에요?

^^ : '좋은 교사'는 없어요. 억지로 공부를 가르치는 건 나쁘죠. 우리를 위한 척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잘 지내고, 학생들을 이렇게 만드는게 지내 들이면서 마음에 안들면 바꾸라고 하고.

&& : 어떤 사람들은 우리 위해주는 척 하고 뒤에서 편먹고 교사편 들어요. 그래도 여기 온 교사가 상대적으로 좋은 교사인 것 같아요.

빨간 자전거 :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시스템 안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교사로 머무르려고 하느냐, 시스템을 붕괴시키거나 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느냐의 고민이 늘 들어요. '메트릭스'에 나오는 '네오'처럼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시스템의 오류를 조금씩 수정하면서 체계를 영속시키는 지도 모르죠. 전교조가 없었다면 공교육 자체가 훨씬 일찍 더 많이, 빠른 속도로 망가졌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더 비참했을까? 아니면 새로운 체계가 생겨났을까? 물론 사회자님은 전교조가 '네오'도 못되고 스미스 요원 수준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ㅋㅋㅋㅋ

<참고자료2>

청소년 아카데미 season2

'나는 개긴다, 고로 존재한다'를 마무리하며

4월 11일 청소년 아카데미 season2 '나는 개긴다, 고로 존재한다'를 마무리하며 마무리토론주제는 '핸드폰'이었습니다. 토론은 크게 2가지 정도로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주제는 '1. 휴대폰,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vs 휴대폰 제한 필요없다

두 번째 주제는 2.. 휴대폰은 소통을 가로 막는가? 였습니다.

사회자:휴대폰을 어떤 방식으로 제한하는지?

아랑 :휴대폰의 합리적 제한이라는 말이 안맞아요.. 지네 마음대로 핸드폰을 제한 하면서 합리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 차라리 핸드폰 학교 에서 제한해도 되는가? 핸드폰 학교에서 제한하면 안되는가? 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사회자 :과량새 공부방에는 휴대폰 제한이 있나요?

팬들이 :없구요. 이어폰 제한이 있어요.

사회자:학교에서 핸드폰을 제한하나요? 영서중은 어떤가요?

팬들이 :간부수련회에서 선도부가 강력하게 휴대폰을 제한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사람마다 다르다. 한달이나, 일주일이나, 그시간만 이냐, 뭐 그런 것은 사람들에따라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사회자: 뺏겨본 사람있어요?

미누 :한번은 매너모드안하고 벨소리울려서 뺏겼고, 한번은 문자 보내다 뺏겼는데 핸드폰에 일제고사 반대 스티커가 있어서 더 혼났어요. 한번은 일주일, 한번은 그 시간 끝나고 바로~도덕시간에 뺏겼는데, 한대 때리고 돌려줬고, 일주일 있다 주시는데 음료수 사들고 갔더니 금방 받았어요. 뺏어가서 6개월 있다 돌려주기도 하고, 1년 동안 돌려주지 않기도 해요. 너무 오래 뺏기면 찾으려 갈 때 좋은 걸로 찾아가거나 돈있는애들은 또 사요.

사샤:어떤 선생님은 들어오기 전에 쪽 건어서 창문에 늘어놔야했어요.

사회자: 아직 소지품 검사하는 학교 있어요?

^샘 학주일 때 소지품 검사해서 담배와 화장품이 걸렸다. 수업시간에 선도부원이 돌면서 소지품검사를 해요.

영희:아예 핸드폰 소지자체를 금지하는 학교도 있다. 핸드폰 제한이 없는 학교는 없다.

어느 대안학교에서 아침에 핸드폰을 수거했다가 다시 돌려주기도 해요.. 1학년 5반 선생님은 한반전체를 수거해요. 그 선생님과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전자 기기에 아이들을 중독시키는 것이다 , 습관이 될까봐 그러는 것이다 ' 라고 아이들과 합의해서 했다고 했어요.

파이루:여행을 갈 때도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니까 우리가 보호해주자',하면서 핸드폰을 제한했어요. 백암고 고3 중간고사 기간에 선생님이 반 아이들의 핸드폰을 1주일동안 모두 걷는일도 있었어요.

사회자 : 이러한 제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아랑 : 핸드폰을 만지니까 가져가는데 그러면 연필, 지우개, 교과서도 가져가야되는 것이 아닌가?

마왕: 교사는 배우가 공연하듯이 수업을 준비하는데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무시당하는 느낌이 너무 심해요. 무시 당하는 기분만큼의 기간 동안 돌려주지 않는거예요 학교를 왔으면 수업시간에는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해요.

파이루 :인권교육할 때 누가 핸드폰을 해도 기분나쁘지 않아요. 뺏을 정도는 아니예요.

마왕 : 핸드폰이 없는 시대의 교사들은 핸드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요. . 집중의 문화가 필요해요. 학생들은 내가 핸드폰하면서도 수업 듣는데 왜 문제 삼냐하는데 학생들은 개인이 아니라 수업 분위기를 만드는 환경이기도 해요.

사회자:미리 핸드폰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뺏을 지 약속한 적이 있는가요?

아랑: 근데 수업 시간에 전화받는 사람이나 매너로 안해놓고 벨소리 울리는 교사도 있다. 강사든 청자든 수업의 맥을 끊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수업 이라는 소통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나도 중요한 거만 문자를 하는데 핸드폰 뺏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이상해요. 지금 학교에서의 핸드폰 규제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이에요. 그 선생님이 좋고 수업이 재밌으면 절대 핸드폰 꺼내지 않는다. 그 시간에 뺏기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지, 선생님들도 안타까운 표정이지 짜증은 안내요. 결국 그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의 문제예요. 선생님들이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지, 무조건 뺏는 것은 아니예요.

마왕: 어른들도 습관적으로 뭔가를 하는데 늘 어떤 것이 옳은지 따져가면서 하기는 어려워요. 또, A라는 선생님이 애들한테 잘해주면 A 주변 선생님들이 A를 따시킴기도 하구요. 수업을 왜 저따위로 해? 라고 하지만,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역력이 있어야한다.근데 지금 한국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억압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 서로 힘을 합쳐야죠.

파이루 : 교육을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것이 되려면 서로 동등해야되는데 누구는 압수할 수 있고, 누구는 뺏길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마왕 :애가 어른이 되어갔다는 것을 인식한지 얼마안되었는데 , 그것이 쉽지 않아요. 청소년들도 자기가 한 얘기들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 가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가의 부분이 있어요.

미미: 수업이 일방적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수업들 자체가 일방적이에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동의받지 않는 거죠. 개기라고 말했지만 비현실적일 수 있어요.그리고, 교사들의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합리화 될수는 없어요.

유짱 :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항의가 필요해요.

다희 :항의하면 선생님들은 화를 내요. 이미 청소년들은 충분히 표현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항의했어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답답한 것이다. 핸드폰이 없는 세대의 문화와 핸드폰이 산소같은 세대의 문화 충돌인데 어른들의 문화만 강요하고 있어요. 신뢰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신뢰의 방식 자체도 어른들의 문화에 맞춰져 있어요.

마왕 :핸드폰이 교사들에게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핸드폰이 바깥과 연결되어있다'는 것이 교사들에게 위협감을 줘요. . 교실 안이 동영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불안한부분이 있죠. 또 다른면에서 휴대폰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니야?핸드폰 압수가 왜 인권침해인가? 핸드폰이 없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이 인권침해가 될 수 있어요.

철수 :국민들의 90%가 하고있는데 그러면 이미 문화의 일부가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핸드폰 압수라는 방식 자체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있기는 하다. 이것 때문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다.

사회자 : '핸드폰이 있는 문화를 전제하는 것 자체가 폭력적인가? 아닌가?'와 ' 핸드폰 규제가 옳은가 그른가?'는 구분되어야하는 것이다.

철수 : 핸드폰을 뺏으면 더 집착하게 만들어요.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구슬치기를 했는데 구슬치기 중독이라고 하지 않았다. 하루 2~3시간 하는게 중독일까?

마왕 :우리도 억울해. 공부 열나게 시키고 대학을 보내고, 직업을 갖게 해야 우리가 니네를 때놓을 수 있다. 억압체제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안에서 교사, 학생이 싸우고 있다. 그 안에 우리가 리 치고 박고 싸우는 것 같다. 이런 현실을 누군가 만들어낸 것이다. 내새끼니즘

사회자 :어느 선까지 규제할 수 있는가? 규제 자체가 광범위한 느낌이다. 규제라함은 핸드폰과 관련 해서 규칙을 정한다는 것이다.

마왕 :핸드폰을 쓰고 싶은 욕망이 우리 자신의 욕망인지 핸드폰 광고가 만들어낸 삶은 아닌지 ~핸드 폰을 얘기하다가 하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그건 맞는가?

은혜: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설득할 문제지 뺏고 할 수는 없다. 그건 우리들의 문화니까

사회자 :핸드폰과 관련된 교칙이 필요할까?

청소년들 :필요없다~

따이루 :학생회장이 그런 걸 해야하지. 간부수련회가서 놀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은지:회장이 말해야한다고 하는데 나가는 사람이나 뽑는 사람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야한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실제 하려고 하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사회자 :대학갔는데 교수가 핸드폰을 갖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젠들이 :연극할때도 미안해하면 되는데 왜 뺏는지?

사회자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할 유일한 규칙이 있다면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다. 근데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배려하지 않는다.

아랑:딱 2분 시간에만 아무도 핸드폰을 하지 않았다. 한분은 젊고 한분은 나이가 드셨는데 그 두분의 특징은 모두 친구 같았다. 핸드폰을 하면 맥이 끊긴다고 하는데 혼내지 않으면 끊기지 않아요.

사회자 :모든 청소년 인권 논의의 출발점은 '청소년이 미성숙하다'와 '청소년은 공부해야한다'이다. 대안학교 교장 양희창이 '핸드폰'이 소통을 가로막기 때문에 규제한다고 했다.

산마루 고등학교도 규제한다고 들었다. 성미산 학교도 핸드폰을 걷는다.  
핸드폰을 하면서 문자를 하면 서로 소통하는 느낌이 안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수 없는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오가기도 해요.

미미 :그런 애들 드물다. 핸드폰도 소통을 가로막지만 다른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더 많아요. 오히려 공부가 소통을 방해하기도 한다.맨날 학원가서 놀지도 못하잖아요. 외로워진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뺏으면 또 다른 기기에 중독될 거예요.

철수 :핸드폰을 하면 옆사람과는 소통이 막히지만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오히려 새로운 소통방식으로서의 장점이 많아요.

은혜 :앞에 친구가 있는데도 다른 아이랑 하는 것은 나빠요.  
아랑:같이 얘기하는데도 문자를 하는 것은 문자의 대상이나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일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가 소통이 되어야하는데,대화에 소통이 잘 안되고, 일방적으로 계속 쏟아내고 그럴 때 핸드폰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미 소통이 안되는 상황이에요.

사회자 :요즘 긴문자를 보내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청소년의 문자에는 사연이 있어요. 자판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소통을 하고 싶다는 증거들이 핸드폰에서 발견되기도 해요. '꺼져'라는 말조차도 소통하려는 노력이죠.  
불통의 느낌은 도처에서 발견돼요. 사실 '아빠 힘내세요'는 아빠들이 싫어하는 노래래요. 아빠들이 골빠지게 일하는게 누구때문인데, 아빠의 마음은 '니들 땀에 힘들어'가 아닐까요?

윤영 :소통을 가장 많이 가로막는 것은 권력이예요. 높은 사람들하고는 정말 말이 안통한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말이 더 안통해요.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너무 젖어 있어요. 일제고사 반대 뺏지를 달고 있었더니 '너는 왜 시험에 반대하느냐','너는 모든 시험을 안볼꺼냐' 막 질문하는데 말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했어요.  
사회자 :전교조 교사, 공부방, 대안학교 에 있는 사람이 소통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혼육이든, 갈구든, 더 집착이 있어요. 잘한다는 사람일 수록 더 마음의 벽이 있죠.